

# 日·韓兩國語 派生形容詞의 類型과 意味 考察

高恩淑\*

## 〈요지〉

본고는 일·한 양국어의 파생형용사 형성에 관여하는 파생접미사 유형의 양상 및 특징을 살펴보고 그 의미 기능 및 용법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각각의 언어에 나타나는 파생형용사의 양상을 살펴보고 양국어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비교·검토해 보았다. 형용사와 접미사에는 일본어의 경우 '-がたい, -がましい, -がわしい, -こいっこい, -たいったい, -たらしい, -づらい, -にくい, -ぼいっぼい, -めかしい, -やすい, -らしい' 등을, 한국어의 경우는 '-나다, -답다, -되다, -롭다, -디랴다, -맞다, -스럽다, -스름하다, -지다, -직(직)하다, -씩다' 등을 들 수 있다. 몇몇 접미사를 제외하고 양국어 파생접미사는 어휘적 의미 기능과 문법적 기능을 갖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러한 접미사들은 의미결정 능력과 동시에 파생형용사로 전성되는 품사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어의 경우 파생형용사를 구성하는 파생접미사에 결합되는 선행어기는 주로 명사, 동사 연용형, 형용사·형용동사 어간, 부사 등으로 파악된다. 한편 한국어의 경우 파생접미사에 이어지는 선행어기로는 주로 명사가 많으며, 그 외에 명사성 어근, 형용사 어간, 부사 등을 들 수 있다. 이 점은 양국어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현상이다. 그러나 특히 한국어 접미사 '-롭다'는 명사 또는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만 결합해 파생형용사를 형성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한편 일본어 접미사 '-らしい'는 문법범주상에 있어서 조동사 '-らしい'와의 동요현상이 야기되는 반면, 한국어에서는 파생형용사를 구성하는 접미사에는 그러한 현상이 제기되는 접미사가 없는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다.

논문분야 : 形態論

키 워 드 : 派生形容詞, 接尾辭, 意味機能, 語基

## 1. 序論

본고는 일본어와 한국어의 형용사 중 조어성분, 즉 비독립 요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형태인 파생형용사를 중심으로 그 형용사를 형성하는 파생접미사의 유형과 의미 특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파생형용사 형성에 관여하는 파생접미사 유형의 양상 및 특징을 살펴보고 그 의미 기능 및 용법에 대해 고찰하려고 한다. 각각의 언어에 나타나는 파생형용사의 양상을 파악하고 양국어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비교·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접미사에 의한 파생은 파생어 형성에 있어서 다양하면서도 생산적인 양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접미사는 어기를 중심으로 하여 접속한다는 점과 어기에 의미를 더해준다는 점, 단어 형성에 참여하여 새로운 파생어를 생산한다는 점, 그리고 의존성이 강하다는 점 등의 특징적인 작용을 한다. 또한 접미사는, 일부 접두

\*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일본어학

사를 제외하고 어기의 의미첨가 기능만을 하는 접두사와는 달리 형태론적, 문법적인 기능 및 어휘적 혹은 의미적 기능도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일·한 양국어는 모두 첨가어 구조를 가진 언어로서 첨가요소인 조사, 조동사, 어미, 접미사 등의 발달을 주요 특징으로 내세울 수 있다. 특히 접미사는 형태론적 요소로서 단어 파생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역할을 하며 그 생산성이나 분포도 강하다. 본고에서는 파생접사 중 파생형용사를 형성하는 파생접미사에 초점을 두고 양국어간의 유형 양상을 살펴 나가기로 하겠다. 지금까지 양국어간의 대조 고찰 및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번 고찰에서 다뤄 보고자 하는 일·한 양국어의 파생형용사에 관한 논의는 미비하다는 점에 고찰의 목적과 의의를 두고 논의해 가고자 한다.

## 2. 先行研究 및 考察對象

### 2.1 先行研究

일·한 양국어는 모두 수적으로 많은 접미사를 가지고 있고, 기능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어 지금까지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접미사에 관한 연구는 한국어 쪽이 우세하게 논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형용사화 파생접미사에만 한정된 기존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으며, 특히 양국어의 파생형용사에 관해 고찰한 논의는 사실상 드물다.

일·한 양국어의 파생접미사에 관해 논의한 대표적인 연구에는 홍사만(1997)의 논의가 있다. 이것은 주로 양국어의 고유어 접미사를 중심으로 하여 접미사와 선행어기와의 통합양태에 대해 분석·비교하며 기능상의 양태에 관해서도 면밀히 논의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일부에서 일본어와 한국어의 형용사화 접미사에 관한 언급이 제시되어 있는데, 하치근(1988)의 분류에 근거한 용어의 하나인 상태접미사 ‘-らしい, -がましい, -こい, -ばい, -ばい, -たい’ 등의 가의적 기능을 논급하고 있으며, 또한 문법적 기능에 의한 전성접미사를 분류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일본어 파생접미사에 관한 논의에 大谷伊都子(1986), 박춘화(2005)가 있다. 大谷伊都子(1986)는 ‘-たらしい, -がましい’ 두 개의 파생접미사만을 논의 대상으로 하여 각각의 용례, 의미, 용법에 대해 살펴보고 양자간의 차이점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한편 박춘화(2005)의 논의는 접미사 ‘-っぽい’가 주로 색채형용사와 명사에 접속하는 관점에 초점을 두고 코퍼스데이터를 이용해 출현빈도의 양상을 살펴보고 있다. 이들 선행연구는 파생형용사 전반에 대한 접미사의 논의가 아니라는 점에서 형용사화 파생접미사에 관한 구체적인 유형분류 및 특징 등이 논의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현대한국어의 파생형용사에 관한 연구로는 송철의(1985), 김창섭(1984), 박석문(1990), 박청희(2004) 등이 있다. 송철의(1985), 김창섭(1984)은 유사성을 지닌 형용사화 파생접미사 ‘-답, -스럽, -롭’의 기능과 의미에 관한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논한 고찰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김(1984)에서는 명사구에 접미해서 형용사구를 형성하는 통사론적 기능의 ‘-답1’과 형용사 파생의 기능을 가지는 ‘-답2로 나눠 비교하고 있다. 여기서 형용사 파생접미사 ‘-답’의 어기가 단어가 아니라 구를 어기로 가지는 부류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박석문(1990)에서는 형용사 파생접미사의 통시적인 변화 양상을 어간과 접미사의 결합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히 중세국어의 파생접미사와 현대국어의 파생접미사가 어간 또는 어근에 결합하여 형성된 파생어를 중

심으로 접미사의 변천과 어간과 접미사의 결합관계의 변화 양상을 논의하고 있다. 박정희(2004)에서는 접미사 전반에 대한 연구와 함께 각각의 형용사 파생접미사들에 대한 의미분석, 여기에 대한 계량적인 접근을 통한 결과 제시와 생산성에 대한 분석을 함께 다루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각각의 언어에서의 논의가 대부분이며, 홍사만(1997)의 논의만이 일·한 양국어간의 비교 연구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양국어간의 접미사 전반에 걸친 연구로서 파생형용사만이 가지는 유형 및 특징을 깊게 다루고 있지는 않다.

본고는 이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파생형용사를 형성하는 파생접미사의 유형과 그 의미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2.2 考察對象

본고에서 고찰대상 어휘를 추출하기 위해 자료로 삼는 형용사는 양국어 모두 사전에 품사가 형용사(일본어의 경우는 기본형이 ~い형)로 제시된 표제어를 대상으로 한다. 이것은 주로 전자파일에서 추출할 수 있는 사전을 주요자료로 사용하기로 하겠다.

우선 일본어의 경우는 일본 국어사전인 <표1>에 제시한 세 사전의 형용사를 모두 추출한 후 그 전체 형용사 어휘를 고찰대상으로 한다.

한국어의 경우는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형용사를 추출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또한 국립국어연구원의 '전자사전 검색자료'는 예시를 찾아보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양국어의 사전에서 추출한 고찰대상으로 삼을 자료 어휘 정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1> 고찰대상 어휘수

	고찰대상 사전	추출 어휘수	고찰대상 어휘수
일본어	新明解国語辞典	752語	850語
	岩波国語辞典	673語	
	三省堂国語辞典	773語	
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 <sup>1)</sup>	6323語	5841語

위 사전에서 추출한 형용사를 대상 어휘로 하여 형용사화 접미사의 결합으로 형성된 파생형용사의 어휘를 검색, 제시하고 그 의미·용법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고찰해 가기로 한다.

## 3. 派生形容詞의 類型과 意味 考察

접미사는 어기의 개념내용에 수식과 한정을 더하는 것으로 어휘적 기능과 문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sup>2)</sup>

1)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가각하다'와 같이 현재 사용하지 않는 古語형태의 말, 옛말, 북한어, 방언 등을 모두 수록하고 있다. 형용사 어휘에서 '가각하다' 등의 古語형의 말을 제외한 것이 5841語이다.

어휘적 기능은 여기에 의미를 첨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문법적 기능은 어기의 핵구조에 문법적 변화를 야기시키는 것이다. 또한 접미사는 어기나 단어 뒤에 붙어 파생어를 만드는 결합형식의 하나로, 이 분포와 기능에 대한 논의는 그 피점요소인 어기의 종류를 다루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 이는 파생접미사들이 모든 어기에 자유롭게 통합될 수 없기 때문<sup>3)</sup>이라는 지적을 들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일본어와 한국어 각각의 언어에서 보여지는 파생형용사의 유형을 분류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각 언어의 파생형용사에 관여하는 파생접미사를 제시하고 그 의미 기능 및 문법 기능을 살펴보고 실제 구문에서 쓰여지는 예문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이들 형용사화 파생접미사를 각각 고찰해 봄으로써 유사한 의미 특징을 갖는 접미사간의 상관관계도 더불어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일·한 양국어의 형용사화 파생접미사가 결합되는 선행어기의 종류와 특징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공통점 및 차이점 등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3.1 日本語의 派生形容詞

일본어의 형용사화 파생접미사는 ‘-がたい, -がましい, -がわしい, -こいっこい, -たいったい, -たらしい, -づらい, -にくい, -つばい, -めかしい, -やすい, -らしい<sup>4)</sup>등이 주축을 이룬다. 이 중 특히 ‘-がたい, -づらい, -にくい, -やすい’ 등은 주로 동사의 연용형에 접속하여 형용사화하는 전성접미사라고도 할 수 있다. 파생접미사가 결합해 형성된 파생어는 그 의미나 문법적 기능이 어기보다도 접미사 쪽에서 주도하게 된다. 이 절에서는 일본어의 형용사화 파생접미사에 대해 그 유형과 의미 기능을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 [1] -がたい

ありがたい/言い難い/得難い/心得難い/救い難い/耐え難い/度し難い/ぬきがたい/止み難い/わかちがたい/忘れ難い

‘-がたい’는 {…하기 어렵다} 라는 난해함의 의미를 나타낸다. 위에 제시한 형용사의 예와 같이 이것은 주로 동사 연용형에 붙어 형용사화 하는 파생접미사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고, 그 생산성 또한 매우 높다고 보여진다. 어기가 각각 동사인 어휘들이 접미사 ‘-がたい’가 접속함으로 인해 형용사의 문법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 파생형용사는 다음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체형의 용법, -くなる의 형태 등으로 활용됨을 볼 수 있다.

(01) 彼女の笑顔は忘れがたい印象を残した。(形用606)<sup>5)</sup>

(02) それを見ているうちにこっちまで息苦しくなり、耐えがたくなって、友人にどうも胸が可訝しい。

2) 阪倉篤義(1986) 「接辞とは」 『日本語学』 Vol. 5 p.7

3) 홍사만(1997) 「한·일어 파생어 형성에 관한 비교 연구」 『어문논총』 31호 경북어문학회 p.4

4) 일본어의 경우 이 접미사류에 ‘-ない’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각각 결합되는 어기의 종류와 특징에 따라 접미사, 조동사, 형용사 중 어느쪽으로 취급해야 하는가에 대한 어려운 난점을 안고 있다. 이 ‘-ない’에 대한 논의는 개별적인 논문으로서 논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차후 본인의 연구과제로 남기고 이번 고찰에서는 제외하기로 하겠다.

5) 예문은 각 파생형용사가 실제 文에서 쓰여지는 경우를 제시해 보고자 함이다. 예문에 대한 부가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예문 출처 중 ‘形用’은 『現代形容詞用法辞典』에서 발췌한 예이다.

(人生)

【2】 -がましい

うらみがましい/鳥澁がましい/押付けがましい/恩着せがましい/差し出がましい/晴れがましい/ひとがましい/未練がましい/わざとがましい

접미사 ‘-가ましい’는 {…인 것 같은, …와 닮은} 의 의미를 나타내며, 다양한 품사에 붙어 형용사화 하는 접미사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것은 명사, 부사 또는 동사의 연용형 등에 붙어 형용사를 만드는 파생접미사이다. 특히 ‘-가ましい’가 부사에 접속해 형성된 파생형용사는 ‘わざとがましい’가 유일한 예이다.

이 접미사에 대해 일본어 사전에는 {~らしい、~の風がある、~のきらいがある} 또는 {~で表される状態や行為に近いようすであるという意味を表す} 등의 의미 정보를 표시하고 있다. ‘-가ましい’는 피해 의식을 느끼거나 부담을 느껴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그 상황에 대해 비난섞인 감정을 가지는 의미를 나타낼 경우에 쓰이기도 한다.

(03) 「差し出がましいようだけど、私が間に入ったら…」 「え?」 (ばらの)

(04) 「そんなことわからない者に、私の代理などおこがましい。鏡の前で、箸でも振ってなさい。」

(のだめ)

【3】 -がわしい

猥りがわしい

이것은 일본어 전체 형용사 중 그 예가 하나만 있을 정도로 생산성이 극히 낮은 형용사화 파생접미사라 할 수 있다. 그 의미는 {…인 것 같다, …경향이 있다} 주로 명사나 동사 연용형에 결합한다. ‘-가ましい’와 유사한 의미 기능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05) 夜人妻と会っていると、人はみだりがわしく見るだろうね。(形用534)

【4】 -こい・っこい

脂っこい/すばっこい/すべっこい/ちっこい/ねっこい/ねちっこい/粘っこい/はっこい/ひとなつっこい/ひやっこい/まだるっこい/丸っこい/やっこい

이것은 주로 명사나 성질·상태를 나타내는 말에 붙어서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っこい’ 쪽이 더 강한 어조를 띄거나 강조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 의미는 {…기(氣)를 강하게 띠고 있다. 그 특징적인 성질이 강하게 느껴지다} 와 같은 뜻을 더한다.

(06) だって、帝国製鉄の社員なのよ!?なのに、相子さんたら見合いしろってしっこくて。」

(華麗なる)

(07) 「まだ骨張ったところはどこにもなく、まるっこくて肌が白いのです。(やまあ)

## [5] -たい・ったい

あつぼったい/うざったい/重たい/擦ったい/口幅ったい/つべたい/けぶたい/煙たい/じれったい/つめた  
い/眠たい/腫れぼったい/平たい/平べったい/まったい/めでたい/野暮ったい

주로 명사나 동사 연용형에 결합해 파생형용사를 조성하는 이 접미사는 {その事のはなはだしい}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특히 동사 연용형에 이어질 경우, 어떤 사항의 실현성을 강하게 바라는 동작 주체의 기분을 나타내는 조동사 '-たい'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접미사는 여기에 접속하여 그 파생어 전체의 품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반면, 조동사 '-たい'는 그러한 품사결정 기능을 갖지 않는 점에서 접미사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08) 「ま、一次くらいじゃめでたくもなんともないけど。久々に飯を作ってやってもいいぞ。」(のだめ)

## [6] -たらしい

嫌味たらしい/自慢たらしい/すいたらしい/長たらしい/憎たらしい/貧乏たらしい/未練たらしい/惨たらしい

명사나 형용사, 형용동사 어간에 붙어서 파생형용사를 만드는 이 접두사는 {...와 같은 느낌이 들다(들어 서 좋지 않다)}의 상대적인 의미 기능을 갖는다. 이것은 뒤에서 살펴볼 접미사 '-らしい'와 상관관계를 갖는데, '-らしい' 쪽이 평가적으로 중립적인 데 반해 '-たらしい'는 대상에 대한 불쾌감을 동반할 경우에 쓰여 지기 때문에 마이너스적 평가가 수반된다<sup>8)</sup>고 볼 수 있다. 특히 '-ったらしい'는 축음의 삽입에 의해 불쾌감이 훨씬 가미됨을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 파생형용사 '未練たらしい'는 앞서 제시한 '未練がましい'와 그리고 '貧乏たらしい'는 '貧乏くさい'<sup>9)</sup>와 같이 서로 같은 어기에 서로 다른 접미사가 결합해 형성된 것으로 상관관계에 있음을 엿볼 수 있다. '未練がましい'는 '매우 애착이 남는 모양이거나 마음이 끌려 좀처럼 체념하지 못하고 아쉬움이 남는다'와 같이 마이너스적 의미로 평가할 수 있는 파생형용사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유사한 의미의 형용사인 '未練たらしい'는 체념하지 못하는 행동에 대해 무시하고 알보는 의미의 암시가 들어 있다. 그리고 '貧乏くさい'는 외견뿐만이 아니라 내면심리에 대해서도 그 용법을 보이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궁핍하지 않은 사람이 빈핍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외견이나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다소의 동정심이나 멸시감을 수반해 표현하는 의미의 형용사인 데 반해, '貧乏たらしい'는 외견이나 행동이 빈핍한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좀 더 확실한 멸시감의 암시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하겠다. 이와 같이 동일한 형용동사 어간에 서로 다른 형용사와 접미사의 결합으로 형성된 파생형용사가 그 접미사의 의미침가 기능으로 인해 표현되는 내용이 다른 형용사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6) 大谷伊都子(1986) 「-たらしい・-がましい」 『日本語学』 Vol. 5 p.59

7) 본고는 '-くさい'를 접미사의 기능을 함과 동시에 복합형용사를 조성하는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고찰에서는 '-くさい'를 파생접미사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였다.

(09) 寂しいね。昨日すごいにくたらしくて、もうぶっ殺しちゃおうかなって…。(ロング)

(10) 兄が自分の業績について話すと、いつもじまんたらしい。(形用283)

【7】 -づらい

ききづらい/みづらい

이 접미사는 주로 동사 연용형에 붙어 {…하기 어렵다}의 의미를 나타내며, 실제로 사전에 표제어로 수록되어 있는 파생형용사는 두 개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예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言いづらい’ 등의 예문은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づらい’는 타 동사 연용형에 결합해 쓰일 수 있는 접미사이기 때문에 생산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1) 「言いづらいんだけど…」 「どうした?何でも言いなさい。」(ばらの)

【8】 -にくい

聞きにくい/みにくい/やりにくい

이것은 주로 동사 연용형에 붙어 {…기 어렵다, 쉽지 않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고찰대상 형용사 어휘인 850語 중 형용사화 접미사 ‘-にくい’가 결합해 조성된 것은 세 개만 조사되는데, 이것 또한 앞서 본 ‘-づらい’와 같이 여러 동사의 연용형과 결합력이 강해 다른 부류의 예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접미사라 할 수 있다. 다음 예에서도 그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다.

(12) 「官僚の文章っていうのは、どうしてこうわかりにくくしてあるんだろうね。」(CHAN)

【9】 -ばい・っばい

青っばい/飽きっばい/婀娜っばい/荒っばい/衰れっばい/いがらっばい/いまっばい/色っばい/えがらっばい/怒りっばい/男っばい/気障っばい/黒っばい/子供っばい/湿っばい/白っばい/ぞくっばい/艶っばい/とっばい/熱っばい/骨っばい/水っばい/安っばい/理屈っばい/忘れっばい

주로 명사나 동사 연용형 등 여러 가지 어기에 붙어서 파생형용사를 만들며 그 생산성이 매우 높은 접미사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하는 경향이 있다. 또는 그런 경향이 강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며, 흔히 윗말과의 사이에 축음이 들어가 ‘っば이’의 꼴로 결합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것은 접속하는 어기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정리할 수 있다.

[체언 어기+っば이 ----- 色っばい/男っばい/子供っばい/艶っばい/熱っばい/骨っば이…]

[준체언 어기+っば이----- 婀娜っばい/衰れっばい/青っばい/気障っばい/安っば이…]

[동사 연용형+っば이 --- 飽きっば이/怒りっばい/忘れっば이…]

체언을 어기로 하는 부류는 그 어기의 성질의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성격이 강하다고 보여진다. 준체언을 어기로 하는 부류는 어기의 성질, 상태를 강하게 또는 질게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동사 연용형을 어기로 하는 부류는 그 동작의 행동을 자주 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 경우는 ‘-やすい’의 의미와도 유의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13) 「とにかく!あのボタンを取り返さないとまずいんだって。」 「健って本当に飽きっぽいよなー。」  
と幹雄。(プロ)

(14) 「古い!キモイ!もっと色っぽい衣装はないのか?それに化粧も!」(のだめ)

【10】 -めかしい

いまめかしい/おぼめかしい/艶かしい/古めかしい

명사 등에 결합해 형용사와 시키는 접미사로서 {...와 같이(처럼) 보인다/ ~のように見える・~のようなさまである}의 의미를 나타낸다. 생산성이 낮은 편이며, 특징적인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 접미사라 하겠다. 특히 ‘艶かしい’는 의미적으로 접미사 ‘-ばい’가 접속한 ‘あだっばい’나 ‘色っぽい’와 상통한다고 보여지는데, 선행어기가 가진 의미의 유사성에서 오는 현상으로, 여기에 접미사가 결합하여 의미첨가 기능으로 ‘그런 경향이 강하다’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5) ボヘミアン(放浪者、はみだしもの)という、やや古めかしい言葉がこの作家にはふさわしい。(天声)

【11】 -やすい

飽きやすい/感じやすい/ぎょしやすい/くみしやすい/見やすい/わかりやすい

이것은 {...하기 쉽다, 수월하다}의 의미 정보를 갖는 형용화사 접미사로 주로 동사 연용형에 결합해 파생형용사를 구성한다. 이 접미사도 ‘-がたい, -づらい, -にくい’ 등과 같이 여러 동사에 결합할 수 있는 생산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접미사에 의미적으로 대응하는 한국어 형태는 ‘-기 쉽다, 어렵다’ 등으로 동일 문법범주인 접미사로서의 대응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16) 「…例えはものすごくわかりやすいんですけど、」(プロ)

【12】 -らしい

愛らしい/阿保らしい/いじらしい/今更らしい/厭らしい/男らしい/女らしい/可愛らしい/汚らしい/小憎らしい/しおらしい/鹿爪らしい/子細らしい/大層らしい/にくていらしい/憎らしい/人間らしい/馬鹿らしい/分別らしい/見窄らしい/勿体らしい/もっともらしい/わざとらしい

주로 명사나 형용사 어간, 부사 등에 접속해 {...답다, ...風이다, ...인 것 같이 생각되다, ...인 것 같

다, ...느낌이 들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접미사는 다른 문법범주상의 동요를 논할 때 조동사와의 동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특히 형용사화 접미사 ‘-らしい’는 그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조동사 ‘-らしい’가 근거나 이유가 있는 추정 또는 확실한 傳聞 등에 근거한 추정의 의미를 나타내고자 할때 접속하여 쓰인다는 점에서 접미사와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17) いまどき汗水流してちっほけなお金を稼ぐなんてバカらしいでしょ?(東京)

(18) そんなタンポポに、小さな愛らしい手が伸びていく。(ばらの)

### 3.2 韓國語의 派生形容詞

한국어의 형용사화 접미사에는 ‘-나다, -답다, -되다, -롭다, -다랄다, -달다, -맛다, -스럽다, -스레하다, -스름하다, -지다, -직(씩)하다, -쩍다’<sup>8)</sup>등이 주축을 이룬다. 접두사에 비해 접미사는 뜻을 더하기도 하고 그 자격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통어적 구조에 변화를 가져 오게 하는 구실을 하여 조어력이 왕성하다는 특징 때문에 그 본질 파악에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 형용사를 파생하는 접미사가 접속하는 여기에는 주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불완전 어근 등이 있다. 이 절에서는 한국어 파생형용사를 형성하는 접미사에 대해 그 유형과 각각의 의미 특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1] -나다<sup>9)</sup>

각별나다/감질나다/네모나다/덜나다/독별나다/돋나다/뚝별나다/뛰어나다/맛나다/모나다/못나다/번질나다/별나다/별중나다/별축나다/빠어나다/뻥질나다/뻥질나다/성미나다/세모나다/솟어나다/엄청나다/유별나다/자별나다/잘나다/주살나다/중빨나다/졸중나다/치어나다/특별나다

형용사화 접미사 ‘-나다’는 일부 명사나 명사성 어근 뒤에 붙어 {그런 성질이 있음}의 의미를 나타내 준다. 이들 형용사는 한자어와 결합하는 예도 있지만, 주로 고유어와 결합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화자가 형용사 어기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에 대한 사실을 나타내는 의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네모나다, 세모나다’ 등과 같은 형용사는 명사에 ‘-나다’ 접미사의 결합으로 ‘그러한 모양’을 나타내는 의미를 나타내며, 뒤에서 후술할 접미사 ‘-지다’에서 ‘세모지다, 네모지다’의 예와 의미적으로 상통함을 알 수 있다.

8) ‘-하다’에 대해 한국어에서는 ‘-하다’를 자립용언으로 간주하는 입장과 형용사화 접미사로 간주하는 입장의 양론이 있다. 이에 대해 하치근(1984)은 ‘-하다’는 접미사로서의 본질적 특성인 내적구성의 힘이 약하고 어근과의 결합분포가 개방적이며 그 사이에 유리성이 개재되어 분리된 양 요소에 독립성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하다’는 선행요소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구문적 기능을 부여하거나 심층동사를 대리하는 기능을 가지기도 하므로 그 자립성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는 하치근의 논점에 따라 ‘-하다’를 파생접미사의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실제로 한국어 고찰대상 형용사어휘(『표준국어대사전』)에서 ‘-하다’가 접속해 조성된 어휘를 조사해 보면 옛말, 방언, 북한말을 모두 포함하여 약 1022여개가 조사된다. 이 중에는 원래 형용사인 외래어 naive나 romantic등에 ‘하다’가 접속해 형용사를 이루는 것으로 ‘나이프-하다(naive-) 로맨틱-하다(romantic-)’ 등의 용례가 다수 있다. 이러한 것들도 양 요소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한 예라고 생각되므로 본 고찰에서 ‘-하다’는 다루지 않기로 하며, 차후의 논의 과제로 남기겠다.

9) 보고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파생형용사 어휘를 검색하여 제시할 때 옛말, 북한어, 방언에 해당하는 어휘는 제시하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19) 미연이는 인물가난이 든 김 승지 집에서는 출중나게 아름다웠고... (이무영, 농민)

(20) 남 하는 대로 따라가야지 왜 중빨나게 혼자 고집을 부리느냐? (표)

**[2] -답다<sup>10)</sup>**

꽃답다/시답다/실답다/아름답다/아리뻑다/예답다/예모답다/정답다/참답다

‘-답다’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성질이나 특성이 있음, 그러한 가치가 있다, 그것과 같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화 접미사이다. ‘정답다, 꽃답다’ 등의 예는 접미사에 선행하는 명사의 속성이 풍부히 있음의 의미를 나타내 주고 있다. ‘아리뻑다’는 ‘마음이나 몸가짐 따위가 맵시 있고 곱다’는 의미로 ‘아릿답다(북한어)〈아순답다〉와 같은 형태로 주로 중세한국어에서 다루어져 왔던 것으로 현대어에서는 ‘-답다’의 꼴로 쓰이지 않는 경우이다. 이에 상응하는 형용사가 ‘아리뻑다’로서 ‘-답다’ 접미사의 의미 기능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접미사 ‘-답다’는 주로 화자의 주관적인 평가, 객관적인 사실 판단에 대한 서술이거나 또는 그 가치성에 대한 평가 의미를 나타내는 특징을 갖는다.

(21) 모든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고 정다워 보였다. (한설야, 탐)

**[3] -되다**

거짓되다/고되다/공변되다/다되다/덜되다/둘되다/막되다/못되다/불되다/불되다/사되다/사삿되다/삿되다/상되다/새되다/생되다/설되다/쌍되다/안되다/엿되다/어중되다/엇되다/올되다/왕청되다/외람되다/유감되다/잡되다/좁되다/참되다/뜻되다/호되다

‘-되다’는 몇몇 명사, 어근, 부사 뒤에 붙어 형용사를 만드는 파생접미사이다. 이들 파생형용사는 대부분 접속되는 어기의 사실을 서술하기 위한 의미로 쓰이는데 ‘막되다, 못되다, 외람되다, 유감되다’ 등과 같이 화자의 의견을 제시할 때 쓰이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2) 공변되고 밝고 청렴하고 부지런하면 이는 선치수령이요...(홍명희, 임격정)

(23) 찾는 번지가 가까워 오는가 하면 별안간 훌쩍 뛰어 왕청된 번지가 나온다. (한설야, 황혼)

**[4] -롭다**

가소롭다/가파롭다/감미롭다/강파롭다/건조롭다/경사롭다/경이롭다/공교롭다/공의롭다/광휘롭다/괴까다롭다/괴롭다/권태롭다/까다롭다/끼까다롭다/날카롭다/낭패롭다/다사롭다/다채롭다/단조롭다/대사롭다/대수롭다/따사롭다/망패롭다/맵시롭다/명미롭다/명예롭다/번거롭다/변화롭다/보배롭다/부유롭다/부자유롭다/사사롭다/상네롭다

10) 송철의(2001, p143)는 접미사 ‘-답다’를 ‘-답1-, -답2-’로 나눠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①‘-답1-’은 자음으로 끝나는 어기에만 결합되지만, ‘-답2-’는 그러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②‘-답1-’은 명사와 어근에 다 결합될 수 있으나, ‘-답2-’는 명사에만 결합된다. ③‘-답1-’은 명사구에 결합되지 못하나, ‘-답2-’명사구에도 결합될 수 있다. 명사구 결합으로 인해 ‘-답2-’는 파생접미사라고 할 수 없는 견해도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상서롭다/새롭다/생기롭다/수고롭다/수나롭다/수수롭다/순리롭다/순조롭다/순화롭다/슬기롭다/신기롭다/신비롭다/아수롭다/아처롭다/애고롭다/애처롭다/양기롭다/여유롭다/영기롭다/영예롭다/영화롭다/예사롭다/예수롭다/예의롭다/예지롭다/예처롭다/외따롭다/외롭다/요괴롭다/요기롭다/우애롭다/운치롭다/위태롭다/유해롭다/은혜롭다/의롭다/의외롭다/의초롭다/이롭다/이채롭다/인자롭다/임의롭다/자비롭다/자애롭다/자유롭다/자혜롭다/잔조롭다/재미롭다/저주롭다/정가롭다/정교롭다/정예롭다/정의롭다/정채롭다/조마롭다/조화롭다/중요롭다/주저롭다/지혜롭다/초조롭다/총혜롭다/팽패롭다/평화롭다/폐롭다/표차롭다/풍아롭다/풍요롭다/한기롭다/해롭다/향기롭다/허수롭다/허화롭다/헌거롭다/호기롭다/호사롭다/호화롭다/화기롭다/환희롭다/흥미롭다

이 접미사는 앞서 본 ‘-답다’와는 달리 대부분 모음으로 끝나는 어거나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러함, 또는 그럴만함}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산성이 매우 높고, 한자어와 결합하여 파생형용사를 조성하는 예가 많다. 접미사 ‘-롭다’는 ‘-답다’나 ‘-스럽다’와 의미상 유의관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롭다’는 접속하는 그 ‘어기의 속성이 풍부히 있음’의 의미를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라 보여진다. 이것은 앞서 본 ‘-답다’의 경우에도 같은 특성으로 작용한다. 한편 ‘-스럽다’는 어기에 대한 특징적인 속성에 근접한 의미이거나 그 판단이 주관적 또는 감각적임을 나타내는 의미로 적용된다. 이들 한국어 접미사에 대비될 수 있는 일본어 접미사를 예로 들자면 ‘-らしい’ 류에 대응될 수 있을 것이다.

- (24) 세상만사의 이치를 웃어넘기려 들면 가소롭지 않은 것은 없을 걸세. (박경리, 토지)
- (25) 말투도 달리졌지만 어기의 내용도 오랜 친구처럼 임의로운 표현이었다. (박경리, 토지)

**[5] -다랗다**

가늘다랗다/겉다랗다/곱다랗다/굵다랗다/기다랗다/깊다랗다/높다랗다/덩다랗다/되다랗다/두껍다랗다/머다랗다/멀다랗다/자다랗다/작다랗다/잔다랗다/좁다랗다/짙다랗다/커다랗다/크다랗다

‘-다랗다’<sup>11)</sup>는 일부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 {그 정도가 꽤 뚜렷함}의 의미를 나타내 주는 파생접미사이다. 대부분 고유어와 결합하는 특징을 가지며, 주로 문법적 기능은 하지 못하고 어휘적 기능만을 가진 접미사라 할 수 있다. 주로 크기, 굵기, 깊이, 넓이 등의 의미를 갖는 어간 뒤에 결합하여 파생형용사를 형성하고 있는 특징을 엿볼 수 있다.

- (26) 획이 굵다란 먹글씨를 희미한 불빛에 내리 보고 치보고 한다. (심훈, 상록수)
- (27) 병식은 담배를 붙여 깊다랗게 들이켜고는 담배 연기애다 말을 섞어 내보낸다. (심훈, 영원의 미소)

**[6] -맞다**

가량맞다/가증맞다/간살맞다/깁충맞다/겨렁맞다/겉맞다/곰살맞다/구성맞다/궁상맞다/귀꿈맞다/극성맞다/근천맞다/급해맞다/늑살맞다/늑질맞다/능갈맞다/능글맞다/능청맞다/단작맞다/던적맞다/데설맞다/데통맞다/때맞다/마침맞다/몹살맞다/방정맞다/벤덕맞다/벉충맞다/변덕맞다/별쫓맞다/빙충맞다/사풍맞다/새살맞다/새통맞다

11) ‘-다랗다’의 준말로 ‘-달다’가 있으며, 그 예로 <가느달다/곱달다/기달다/깊달다/높달다/잔달다/커달다> 등을 들 수 있다.

다/생똥맞다/시름맞다/시설맞다/쌀쌀맞다/알맞다/양증맞다/애살맞다/얹심맞다/어긋맞다/얼맞다/용천맞다/음충  
맞다/익살맞다/증상맞다/지질맞다/징글맞다/쫄맞다/작살맞다/청승맞다/직살맞다/칠칠맞다/테설맞다/홍증맞다

형용사와 접미사 ‘-맞다’는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또는 어근 뒤에 붙어 {그것을 지니고 있음}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로 마이너스적인 의미로 쓰이는 예가 많다. 특히 ‘궁상맞다, 능글맞다, 방정맞다, 쌀쌀맞다, 양증맞다, 익살맞다, 청승맞다’ 등은 앞말에 접미사 ‘-맞다’가 결합해 형성된 파생형용사들 중에서 주로 사람의 말이나 행동, 동작 등을 묘사해 나타내 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긍정적 의미이기 보다는 부정적 의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28) 이제 다시는 어머니를 보지 못할것 같은 새통맞은 생각이 들었다. (송기숙, 녹두장군)

(29) 명화는 간신히 가라앉히려던 방정맞은 눈물이 또다시 몰려 떨어졌다. (현진건, 적도)

### 【7】 -스럽다

가공스럽다/가관스럽다/가금스럽다/가년스럽다/가녕스럽다/가량스럽다/가린스럽다/가살스럽다/가상스럽다/가증  
스럽다/가탄스럽다/가탈스럽다/각박스럽다/간고스럽다/간교스럽다/간능스럽다/간단스럽다/간린스럽다/간사스럽  
다/……/계면스럽다/고급스럽다/고난스럽다/고독스럽다/고만스럽다/고민스럽다/고생스럽다/고심스럽다/고아스  
럽다/고약스럽다/고정스럽다/고집스럽다/고통스럽다/고풍스럽다/……/뇌꼴스럽다/느물스럽다/능름스럽다/능글  
스럽다/능청스럽다/다급스럽다/다변스럽다/다복스럽다/다사스럽다/다심스럽다/……/덕성스럽다/덕스럽다/던적  
스럽다/……/돌변스럽다/되양스럽다/되통스럽다/되통스럽다/둔스럽다/둔팍스럽다/둔판스럽다/뒤넘스럽다/뒤변  
덕스럽다/뒤숭숭스럽다/뒤스럭스럽다/뒤웅스럽다/……/민망스럽다/민조스럽다/민주스럽다/믿음성스럽다/믿음  
직스럽다/밧광머리스럽다/밧광스럽다/밧꼴스럽다/밧둥머리스럽다/밧둥스럽다/밧살머리스럽다/밧살스럽다/밧상  
스럽다/바람직스럽다/바보스럽다/바지런스럽다/……/복스럽다/복잡스럽다/불강스럽다/불통스럽다/부골스럽다/  
부담스럽다/부산스럽다/부자연스럽다/부자유스럽다/부잡스럽다/……/불량스럽다/불만스럽다/불만족스럽다/불  
명예스럽다/불미스럽다/불안스럽다/불충스럽다/……/수상스럽다/수선스럽다/수월스럽다/수치스럽다/수통스럽  
다/순진스럽다/순편스럽다/숫스럽다/송물스럽다/스산스럽다/스스럽다/시들스럽다/시똥스럽다/시망스럽다/시뻘  
장스럽다/시설스럽다/……/신비스럽다/신산스럽다/신세스럽다/신통스럽다/……/양살스럽다/양상스럽다/양증  
스럽다/양갈스럽다/양큼스럽다/애교스럽다/애발스럽다/애살스럽다/애상스럽다/……/야발스럽다/야살스럽다/야  
속스럽다/야심스럽다/……/자랑스럽다/자미스럽다/자발스럽다/자비스럽다/자상스럽다/자연스럽다/자유스럽다/  
작별스럽다/잔망스럽다/잔인스럽다/잡상스럽다/잡스럽다/……/조급스럽다/조신스럽다/조심성스럽다/조심스럽다  
/조쌀스럽다/……/탐스럽다/탐욕스럽다/탐탁스럽다/태갈스럽다/태연스럽다/태평스럽다/털털스럽다/토심스럽다  
/투갈스럽다/투박스럽다/……/표독스럽다/푸쩍스럽다/풍아스럽다/핀잔스럽다/한가스럽다/……/후회스럽다/홍  
물스럽다/홍스럽다/홍악망측스럽다/홍증스럽다/홍측스럽다/흐들갑스럽다/흔감스럽다/흔연스럽다/홍감스럽다/희  
한스럽다<sup>12)</sup>

{그러한 성질이 있음, 보기에 그럴 만하다, 보기에 그런 느낌이 있다}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스럽다’는

12) 접미사 ‘-스럽다’가 결합해 이루어진 파생형용사는 773개이다. 생산성이 매우 높은 이 형용사의 목록은 지면관  
계상 모두 수록하지 못하고 일부만을 제시한다. /……/의 표시는 일부 생략했음을 의미한다.

일부 명사 뒤에 붙어 파생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접미사들 중에 생산성이 매우 높으며, 한자어 뿐만 아니라 고유어와도 결합하는 결속력이 강하다. ‘-스럽다’의 의미는 앞서 본 ‘-답다’ ‘-롭다’에 비해 여기에 대해 판단하는 주체의 존재가 강하게 암시되고, 그 판단이 다소 주관적 판단이라고 암시되는 듯한 느낌으로 쓰인다. 따라서 어떤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보고로 쓰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특징을 보여주는 접미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답다, -롭다’가 보다 본질적인 면에서의 평가를 나타내는 의미 기능을 갖는다면, ‘-스럽다’는 보다 감각적인 면에서의 평가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0) 왜 그렇게 남들이 싫어하는 짓을 고집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 (한승원, 해일)

(31) 남의 물건을 함부로 쓰고서 거짓말까지 하다니 정말 양큼스럽다. (표)

### [8] -스름하다

버썩스름하다/보이스름하다/부이스름하다/뽀이스름하다/뿌이스름하다/파르스름하다/퍼르스름하다/푸르스름하다/포르스름하다/해그스름하다/해우스름하다/해우스름하다/해으스름하다/희끄스름하다/희우스름하다/희유스름하다/희으스름하다

이것은 주로 빛깔이나 형상을 나타내는 어근 뒤에 붙어 {빛깔이 열거나 그 형상과 비슷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미사로, ‘-스레하다’<sup>13)</sup>와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 생산성이 낮은 편이며, 그 쓰임 또한 보편적이지 않다.

### [9] -지다

가로지다/가멸지다/가살지다/가풀막지다/가풀지다/간드러지다/간지다/갈퀴지다/값지다/강단지다/강팔지다/거만지다/거방지다/거물지다/거꾸지다/건드러지다/건방지다/겉까리지다/구멍지다/구석지다/구성지다/군것지다/군획지다/굴지다/귀성지다/기름지다/깎지다/꼬부라지다/끈덕지다/끈지다/남성지다/냉쿨지다/네모지다/능갈지다/다기지다/다라지다/다부지다/대살지다/맹가리지다/덜퍽지다/데역지다/도드라지다/되알지다/두겹지다/두드러지다/둔덕지다/드레지다/마디지다/맑지다/맛갈지다/맛지다/매듭지다/머춤해지다/멧거리지다/멧들어지다/멧지다/메지다/모지다/무덕지다/물매지다/미욱지다/밀알지다/바파라지다/바뜨러지다/바라지다/벼랑지다/벽지다/보닥지다/보랏지다/비계지다/비탈지다/빨각지다/빨짱지다/빠지다/산드러지다/살지다/살팍지다/선드러지다/성근지다/세로지다/세모지다/숙지다/숫지다/술지다/숲지다/시건방지다/신동지다/신명지다/실팍지다/쌍까풀지다/쌍꺼풀지다/아롱지다/안침지다/알롱지다/알지다/암팡지다/앙그러지다/앙칼지다/야무지다/야발지다/어롱지다/언덕지다/얼롱지다/엄방지다/엇지다/여무지다/여성지다/오기지다/오닥지다/오달지다/오방지다/옴팡지다/외골지다/외손지다/외지다/우람지다/우묵지다/울멍지다/움푹지다/유들지다/윤지다/을모지다/응달지다/일매지다/자지러지다/잔풍지다/짐병지다/째지다/찢넙지다/차지다/툭박지다/틀지다/팔모지다/포달지다/푸닥지다/푸달지다/푸지다/한갓지다/한울지다/홀지다/후미지다/휘미지다/흐드러지다/흐무러지다/흐무지다/흐벅지다/힘지다

13) ‘-스레하다’는 ‘-스름하다’와 같이 주로 빛깔이나 형상을 나타내는 어근 뒤에 붙어 {빛깔이 열거나 그 형상과 비슷하다}의 의미 기능을 갖는 접미사의 하나이지만, 그 쓰임이 그다지 보편적이지 않고 <어둡스레하다/허엽스레하다/휩스레하다> 등 세 개의 형용사만 조사되었다.

‘-지다’ 접미사는 몇몇 명사 뒤에 붙어 {그런 성질이 있음, 또는 그런 모양임}의 의미를 나타낸다. ‘끈덕지다, 다부지다, 옹골지다, 여성지다, 움푹지다…’ 등과 같이 성질을 나타낼 때는 그 어기의 성질이 강함을 강조하는 느낌으로 쓰이며 ‘네모지다, 살지다, 세모지다, 을모지다…’ 등과 같이 구체적인 모양이나 형상이 그러함을 나타내는 의미로도 쓰인다.

(32) 눈이 가늘고 이마가 도드라진 것이 약삭빠르게 보인다. (이태준, 농군)

(33) 흙진 세 식구가 불과 하루사이에 자그마치 20여 명으로 늘어났다. (김정환, 인간단지)

**[10] -직하다 · 짝하다**

거머직직하다/넙직하다/넓직하다/얹직하다/길직하다/넙직하다/멀직하다/알직하다

‘-직하다’ 와 ‘-짝하다’는 모두 몇몇 형용사 어간에 결합해 {조금 또는 꽤 그러함}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미사로, 주로 고유어와 결합하는 경향이 짙고 ‘두께, 무게, 굵기’ 등과 같이 실제적인 공간을 나타내는 의미의 어기에 결합하는 양상을 보인다.

(34) 사람들은 모른척 지나가다 멀찍하게 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다. (유재용, 성역)

**[11] -찍다**

객찍다/갱충찍다/검연찍다/계면찍다/괴란찍다/괴이찍다/구살머리찍다/괘란찍다/귀살머리찍다/귀살찍다/맥찍다/멋찍다/면구찍다/면난찍다/무안찍다/미심찍다/미안찍다/별미찍다/생광찍다/생색찍다/수상찍다/열찍다/의심찍다/의아찍다/짓찍다/해망찍다/행망찍다/협의찍다

이 접미사는 주로 몇몇 명사 뒤에 붙어 {그런 것을 느끼게 하는 데가 있음}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 접미사는 선행어기에 대한 정도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향을 보이며, 주로 부정적인 의미의 표현을 나타내는 예가 많다.

(35) 자지레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객찍게 시간을 소비하는 것을 알면… (박태원, 낙조)

**3.3 日 · 韓 兩國語의 比較**

형용사와 파생접미사를 일본어의 경우 ‘-がたい, -がましい, -がわしい, -こいっこい, -たいっこい, -たらしい, -づらい, -にくい, -つばい, -めかしい, -やすい, -らしい’의 유형, 한국어의 경우는 ‘-나다, -답다, -되다, -롭다, -다랗다, -맞다, -스럽다, -스름하다, -지다, -직(찍)하다, -찍다’의 유형에 대해 각각 살펴보았다.

양국어 파생접미사가 가지는 공통점은 어휘적 의미 기능과 문법적 기능을 갖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접미사들은 의미결정 능력과 동시에 파생형용사로 품사 전성되는 품사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접미사의 종류에 따라서는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것도 있는데, 특히 한국어 접미사 ‘-

다랗다'는 의미 기능만을 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파생형용사를 형성하는 접미사는 그 의미 기능에 있어서 대부분이 성질·상태의 의미, 정도성의 표현, 어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표현, 어떤 상황에 대한 사실을 나타내는 의미 등으로 파악되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형용사화 접미사가 어기에 결합함으로써 그 어기에 의미를 첨가하는 기능에 의해 역할이 수행되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일·한 양국어 모두 특히 생산성이 높은 접미사로는 일본어의 경우, 주로 동사 연용형에 이어져 파생형용사를 형성하는 ‘-がたい, -づらい, -にくい, -やすい’ 등과 ‘-っぽ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어 접미사에 동일 문법범주인 접미사로서의 대응이 되는 한국어 접미사의 형태는 발견되지 않는다. 반면 한국어의 경우 생산성이 높은 대표적인 접미사에는 ‘-답다, -롭다, -스럽다’ 등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일본어 접미사 ‘-らしい’류에 대비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답다, -롭다, -스럽다’ 등의 접미사는 다양한 품사에 이어지는 일본어 ‘-らしい’의 경우와는 달리 주로 명사나 어근 등에 접속해 파생된다.

양국어 모두 선행어기의 품사범주를 바꿔 파생형용사로 전성시키는 접미사 유형의 대표적인 예를 품사범주에 따라 정리해 보면 다음과 나타낼 수 있다.

〈표2〉 양국어 파생형용사의 품사 전성

품사 전성	일본어	한국어
명사 ⇒ 형용사	-がましい, -がわしい, -っこい, -たい, -たらしい, -っぽい, -めかしい, -らしい	-나다, -답다, -되다, -롭다, -맞다, -스럽다, -지다, -찍다
동사 ⇒ 형용사	-がたい, -がましい, -가わしい, -こい, -たい, -づらい, -にくい, -っぽい, -やすい	한국어에는 그 예가 없다.
형용사 ⇒ 형용사	-こい, -たらしい, -っぽい, -めかしい, -らしい	-다랗다, -직(찍)하다
부사 ⇒ 형용사	-がましい, -らしい	-되다
형용동사 ⇒ 형용사	-たらしい, -っぽい	한국어에는 그 예가 없다.

일본어와 한국어 모두 파생접미사는 어기가 명사인 경우에 결합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어의 경우는 동사 어간에 결합해 파생형용사를 형성하는 접미사의 예가 없는 특징을 보이며, 또한 형용동사라는 품사를 갖지 않는 언어이므로 이 어간에 이어져 파생형용사로 전성시키는 접미사도 찾아볼 수 없는 차이점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반대로 일본어의 특징으로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본어 접미사 ‘-らしい’는 문법범주상에 있어서 조동사 ‘-らしい’와의 동요현상이 야기되는 반면, 한국어에서는 파생형용사를 조성하는 접미사에는 그러한 현상이 제기되는 접미사가 없는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다.

## 4. 結論

이상과 같이 일·한 양국어의 형용사화 접미사에 의해 결합된 파생형용사의 유형의 예와 그러한 접미사가 가지는 의미적 특징을 각각의 언어에서 살펴보고 비교해 보았다.

양국어 모두 첨가어 구조라는 언어 구조의 특징으로 인해 접미사의 유형이 다양하고 종류가 많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파생형용사를 형성하는 접미사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파생접미사가 부여하는 의미 기능의 역할 및 그 문법적 특징에 관해 살펴보았다. 형용사화 파생접미사는 한 국어보다 일본어 쪽이 수적으로 많고 기능도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일본어의 경우 파생접미사에 결합되는 선행어기는 주로 명사, 동사 연용형, 형용사·형용동사 어간, 부사 등으로 이에 접속해 파생형용사로 전성됨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동사 연용형에만 접속하는 ‘-がたい, -づらい, -にくい, -やすい’ 등은 ‘…하기 쉽다, …하기 어렵다’의 의미로 이에 대응시킬 수 있는 한국어 접미사는 없다. 이 접미사의 결합으로 형성된 파생형용사는 실제로 사전에는 많은 어휘가 실려 있지 않으나, 여러 동사에 접속할 수 있는 생산성이 높은 접미사라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어의 경우 파생접미사에 이어지는 선행어기로는 주로 명사가 많으며, 그 외에 명사성 어근, 형용사 어간, 부사 등을 들 수 있다. 이 점은 양국어의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특히 한국어 접미사 ‘-롭다’는 명사 또는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만 결합해 파생형용사를 형성하는 특징을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주로 일·한 양국어의 파생형용사를 형성하는 접미사를 중심으로 그 유형과 의미 기능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접미사 각각의 개별적 형태의 대비와 이를 통한 귀납적인 대조 고찰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하며, 또한 파생형용사를 조성하는 일·한 양국어의 파생접두사에 관한 고찰도 차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用例出典】

〈일본어〉 - 드라마 대본 및 소설을 이용했으며, 각 제목의 밑줄 부분의 약호를 사용한다.

[ばらのない花屋] [ロングバケーション] [華麗なる一族] [のだめカンタービレ] [東京タワー] [プロポーズ大作戦] [CHANGE] / 土岐雄三(1982) 『人生まだ昼下り』 日本社 / 重兼芳子(1983) 『やまあいの煙』 文芸春秋社 / 『天声人語830227』

〈한국어〉 -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예문을 이용하였다. (www.korean.co.kr)

### 【參考文獻】

김창섭(1984) 「형용사 파생접미사들의 기능과 의미-‘답, 스럽, 롭, 하’와 ‘的’의 경우-」 『진단학보』 No. 58 진단학회 pp.145-161

- 박석문(1990) 「형용사 파생접미사의 통시적 고찰」 『반교어문연구』 Vol. 2 반교어문학회 pp.51-72
- 박정희(2004) 「현대국어 파생접미사 연구-형용사 파생접미사를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논문 pp.45-70
- 변영수(2002) 「고유어 접두사의 의미 양상」 한말연구 10호 한말연구학회 pp.43-81
- 송철의(1985) 「파생어 형성에 있어서의 어기의 의미와 파생어의 의미」 『진단학보』 60 pp.193-211
- 송철의(2001) 「파생어」 새국어생활 11-2 pp.137-145
- 임성규(1997) 「형용사 파생에 관여하는 어근 접미사 연구」 『한국언어문학』 39집 한국언어문학회 pp.151-169
- 하치근(1984) 「국어 접미사의 기능 연구」 동아대학교 논문집 11집 pp.125-141
- 하치근(1988) 「국어 파생접미사의 유형 분류」 『한글』 199 한글학회 pp.25-46
- 홍사만(1997) 「한·일어 파생어 형성에 관한 비교 연구-접미파생법을 중심으로-」 『어문논총』 8 경북어문학회 pp.1-50
- 大谷伊都子(1986) 「-たらしい・-がましい」 『日本語学』 Vol. 3 明治書院 pp.58-61
- 阪倉篤義(1986) 「接辞とは」 『日本語学』 Vol. 3 明治書院 pp.4-10
- 野村雅昭(1977) 「造語法」 『岩波講座 日本語』 9 ‘語彙と意味’ 岩波書店 pp.245-265
- 森岡健二(1986) 「接辞と助辞」 『日本語学』 Vol. 3 明治書院 pp.11-18
- 森山卓郎(1986) 「接辞と構文」 『日本語学』 Vol. 3 明治書院 pp.19-27
- 山下喜代(1995) 「形容詞性接尾辞‘~ばい~らしい~くさい’について」 『講座日本語教育』 30 早稲田大学日本語研究教育センター pp.183-206
- 由本陽子(1996) 「接辞の意味と機能」 『言語』 11月号 大修館書店 pp.47-53
- 박춘화(2005) 「接尾辞‘-つばい’について -コーパスを利用した研究-」 『日語教育』 Vol. 33 한국일본어교육학회 pp.33-49

## 〈 要 旨 〉

## 日・韓両国語の派生形容詞の類型と意味考察

本稿は日・韓両国語の派生形容詞形成に関する派生接尾辞の類型の様相及び特徴を考察しながら、その意味機能・用法について考察したものである。

形容詞化接尾辞には、日本語の場合「-がたい, -がましい, -がわしい, -こいっこい, -たいったい, -たらしい, -づらい, -にくい, -つばい, -めかしい, -やすい, -らしい」などが、韓国語の場合は「-나다, -답다, -되다, -롭다, -디랴다, -맞다, -스럽다, -스름하다, -지다, -직(직)하다, -짜다」などが挙げられる。幾つかの接尾辞を除いて両国語の接尾辞は語彙的な意味機能と文法的な機能を持つ共通点がある。つまり、これは意味決定能力と文法決定能力を備えていることを暗示している。日本語の場合、派生形容詞を造成する派生接尾辞に結合される先行語基は主に名詞、動詞連用形、形容詞・形容動詞の語幹、副詞などである。一方、韓国語の場合の先行語基は名詞がたいへん多く、その他に名詞性の語根、形容詞の語幹、副詞などで、両国語ともに類似点があると言えよう。特に、動詞連用形に接続して派生形容詞を形成する「-がたい, -づらい, -にくい, -やすい」は「…하기 어렵다, …하기 쉽다」の意味でこれらの接尾辞に対応できる韓国語の接尾辞の類型は見られない。反面、韓国語で生産性の高い接尾辞である「-답다, -롭다, -스럽다」などは日本語の「-らしい」類に対比される接尾辞であるといえる。韓国語の「-답다, -롭다, -스럽다」は主に名詞に結合されて形容詞になるのに対して、日本語の「-らしい」は多様な品詞に結合されて形容詞に転成される傾向があるのがわかる。

## ■ 고은숙(高恩淑)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일본어학

haimosimosi@hanmail.net

- 投稿日 : 2009年 5月 31日
- 審査開始 : 2009年 8月 8日
- 審査完了 : 2009年 8月 27日
- 掲載確定 : 2009年 9月 4日